

김두관 “‘집단 쓰레기’로 변하면 정권 못 잡아”

‘친명’ 지지층에 직격탄...“뜻 와전돼 실수” 해명 민주 당권 레이스 초반부터 ‘확대명’ 구도 뚜렷 권리당원 73% 몰려있는 ‘서울·경기·호남’ 주목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당 대표 후보는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집단 지성’이 아니라 ‘집단 쓰레기’로 변한 집단은 정권을 잡을 수도 없고, 잡아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는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 대회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몰표’를 준 친명(친이재명) 지지층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후보는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이렇게 합동연설회를 하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합동연설회란 말인가”라며 “소통도, 판단도 필요 없이, 연설도 듣기 전 표만 찍는 기계로 당원을 취급하면서 민주주의를 판매하는 행위는 민주당답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후보 측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별도의 메시지를 통해 “김 후보 폐북에 게재된 ‘쓰레기 발언’은 후보 뜻이 와전돼 실수로 업로드 된 것”이라며 “후보는 이 사실을 알고 즉각 해당 글을 삭제 하라고 지시했다”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김 후보 측은 ‘쓰레기 발언’ 해프닝과 상관없이 현재까지 민주당 당권 레이스는 초반부터 일방적인 ‘확대명’ (확실히 대표는 이재명) 구도로 흐르고 있다.

이 후보는 현재까지 치러진 제주, 인천, 강원, 대구·경북 지역 경선에서 91.7%의 누적 득표율로 압도적 우세를 보이며 대세론을 굳히고 있다.

그는 전날 첫 경선지인 제주에선 82.5%, 2차 경선지이자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에



지난 21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김지수(왼쪽부터)·김두관·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인사하고 있다.

서는 98.77%를 득표했다. 이날 강원 경선에선 90.02%, 대구·경북 경선에서 각각 94.73%, 93.9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2년 전 대표 선거에서의 득표율 77.77%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당시 상대는 비명(비이재명)계 박용진 전 의원

(17.75% 득표) 한 사람이었다. 반면, 이 후보에 맞서는 김두관 후보는 누적 득표율 7.19%, 김지수 후보는 1.1%

1%에 그치고 있다. 특히 ‘이재명 일극체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관심을 끈 김두관 후보조차 ‘확대명’ 구도를 좀처럼 흔들지는 못하는 모습이다.

다만 아직 레이스 초반인 만큼 앞으로 남은 11차례의 지역 경선에서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특히 다음 달 경선이 열리는 서울(21만5천명)과 경기(27만7천명), 호남(41만3천명) 지역의 권리당원 수가 전체(124만2천명)의 73% 가량인 만큼 중후반 레이스에서 분위기가 반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후보가 90%대 득표율 기록을 이어갈지, 김두관 후보가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다.

만약 김두관 후보가 박용진 전 의원의 득표율을 넘어 20~30%대의 득표율만이라도 향후 당내 역학 구도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진수 기자

‘갯벌유산보전원’ 설립 체계적 연구 추진

서삼석 ‘갯벌보전관리법’ 대표발의 “갯벌 가치 향상시켜야”

매년 감소하는 갯벌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와 보전·관리를 총괄하 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사진)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서 의원이 제21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한 법안으로 2021년 신안 등 5개 지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추진한 입법 조치다.

유네스코로부터 우수한 생명의 다양성을 인정받아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대한민국 갯벌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 약 1738천억원 수준이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갯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5년마다 갯벌 면적을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공익적 가치를 간직한 갯벌의 중요성에 비해 전체 면적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갯벌 면적은 2천44331km로 5년 전인 2018년 2천482km에 비해 여의도 면적 13배에 달하는 38.69km가 사라졌다. 지역별로는 전

국조사 추진해 3.48km로 확대됐다. 갯벌이 감소하는 원인으로 매립, 해안선 정비 등을 꼽을 수 있다. 2023년 해양수산부 조사는 이전 조사인 2018년과는 다르게 국립해양조사원의 규정을 준용해 해안선 획정 기준을 변경해 갯벌 면적이 80.35km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매립 및 해안선 정비



남(17.09km), 경남(7.04km)은 증가했지만, 인천(-39.67km), 경기(-20.27km), 충남(-3.19km), 전북(-2.08km) 순으로 감소했다. 울산·경북·강원·제주 갯벌은 신규 조사를 추진해 3.48km로 확대됐다.

갯벌이 감소하는 원인으로 매립, 해안선 정비 등을 꼽을 수 있다. 2023년 해양수산부 조사는 이전 조사인 2018년과는 다르게 국립해양조사원의 규정을 준용해 해안선 획정 기준을 변경해 갯벌 면적이 80.35km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매립 및 해안선 정비

등 인공적 요인으로 16.17km의 면적이 줄어든 반면, 복원 사업으로는 1.25km만 복구된 것으로 파악됐다.

개정안은 갯벌 세계유산의 정의 및 조사, 점검·평가 등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보전 및 관리 활용을 위해 ‘갯벌세계자연유산보전원’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갯벌세계자연유산보전원 설립도 5년 단위로 수행했던 면적 조사 뿐만 아니라 매년 갯벌 세계자연유산에 대해 조사 점검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삼석 의원은 “세계 5대 갯벌로 꼽히는 대한민국 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지만 정부의 미흡한 관리로 면적마저 감소해 생물 다양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자연생태계 복원과 탄소중립 실현으로 갯벌의 국가·경제적 가치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진수 기자

김원이,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등 6개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목포·사진)은 22일 중소기업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중소기업 구제 및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등 총 6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은 연료·열 및 전기 등 주요 에너지 비용이 중소기업의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할 경우 하도급대금 영등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은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 탈취 등 불공정 거래 행위로 적발된 기업으로 부터 걷은 과징금의 일부를 피해 중소기업의 구제와 지원에 쓰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료기기법’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로 판정된 경우 피해 구제 급여를 지급하고 재원은 의료기기 제조사 등으로부터 징수한 부담금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개정안은 방파제·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 지역의 배송물류에 대한 추가 요금 부과를 금지해 섬 지역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라 하더라도 농산어촌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학교에는 반드시 보건교사를 두도록 해 학생 건강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이 골자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라 하더라도 농산어촌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학교에는 반드시 보건교사를 두도록 해 학생 건강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이 골자다.

/김진수 기자

안도걸, 자녀세액공제 확대 소득세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사진)은 22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 자녀세액공제액을 대폭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

양한 세제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OECD 선진국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행 자녀 지원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는 정책 방향을 세제상으로도 뒷받침할 필요도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자녀세액공제액



을 1인당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2배 늘리고, 둘째부터는 5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둘째 자녀가 있는 가구의 자녀세액공제액은 현행 35만원에서 8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안도걸 의원은 “애를 낳고 키우는 게 너무 부담되고 어려워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다”며 “자녀 양육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자녀 세액공제액을 대폭 확대하는 개정안을 통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저출생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野, 김여사 조사에 “檢 출장서비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2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사 밖에서 조사한 점을 ‘특혜’라고 비난하며 사실상 무혐의를 주기 위한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는 역대 대통령에게도 없었던 ‘관할 지역 보안청사’라는 특혜 조사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언제부터 검사가 출장서비스맨이었던지...”라고 비꼬았다.

/연합뉴스

방수제 · 바닥재 · 혼화제 · 천연 황토 코팅제 건물 보수제 전문 생산업체

아직까지 방수로 고민하십니까? 기술이 필요없습니다.

방수! 바닥! 직접 공사하세요!

적용현장 및 시공범위

옥상, 외벽, 지하실, 공장바닥, 주차장, 흙집, 물탱크, 양어장, 수영장, 화장실 타일, 기와집, 내구성 및 평활성을 요구하는 현장, 기타 방수를 요하는 모든 건축물

생산 품목

[DK-301] 강력접착 도막 방수제 / 드림탄²
 [DK-303] 상도코팅방수제(녹색, 회색)셀프탄
 [DK-305] 무색침투도막방수제 / 드림데칼³
 [DK-307] 균열 보수제 / 다막스
 [DK-306] 수용성 투명 발수제 / 탑코팅
 [DK-308] 천연황토코팅제 / 황토리
 [DK-5000] 광택증진 & 오염방지코팅제 / 오염스톱

특징

- 빗물은 막고 습기는 내보낸다
- 기술이 필요없다
- 숨을 쉬기 때문에 들뜨지 않는다
- 경제적이다
- 무독성 무기질 친환경 방수제다
- 습윤상태에서도 할 수 있다
- 미끄럼, 방지기능을 한다
- 욕실 및 화장실 타일을 뜯지 않고도 할 수 있다
- 특히 인종 신기술 공법이다
- 소비자가 인정했다

※전화 문의시 방수·바닥재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품 구입시 시외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시중에 검증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케미칼 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업체입니다.

특허청 DREAM KOREA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드림케미칼코리아 DREAMCHEMICALKOREA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chemicalkorea.com

자매품 바르는 황토벽지 천연황토코팅제 DK-308 황토리